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무등산의 정상 3봉		
활동목표	무등산의 정상인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을 바라보며 '김덕령 장군'의 전설을 듣고 아름다운 경관도 바라보며 무등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해설주제	무등산의 정상		
해설재료	-	소요시간(')	6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1.인사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10분	
주제별 해설	2.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소개	-무등산의 정상 -인왕봉 -지왕봉 -천왕봉	30분	
	3. 눈으로 찍고 마음으로 그리기	-천왕봉에서 눈으로 찍고 마음으로 그리기	10분	
정리	4.마무리	-느낌말하기 -정리 및 마무리 인사	10분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무등산국립공원	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까지 참 맑아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 저는 참 행복한데요. 여러분께도 저의 행복바이러스를 나눠드리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의 행복바이러스에 잘 전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와계신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을 자원,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바로 이곳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4일 무등산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등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예부터 무돌, 무정산, 무덤산, 서석산등 부르는 이름이 많았으며 무등산(無等山)이라는 이름의 무등은 '없을 무'에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는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

	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으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쓰레기투기, 자연훼손행위, 비법정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애완동물 입장 등) 국립공원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빠트릴 수 없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안한 마음으로 자연과의 교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참 행운이시네요”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등산 정상부는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광주광역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군부대의 협의 하에 1년에 4차례정도 분기마다 정상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께서는 이곳 무등산 정상에서의 바람과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주상절리대의 장관을 마음가득히 품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등산 정상은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 세 개의 바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왕봉으로 오르는 길에 가장 처음 만나는 봉우리인 이곳은 인왕봉입니다. 일명 반야봉이라고 불리며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 무등산 서석대쪽에서 정상을 바라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이곳 인왕봉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왕봉입니다. 지왕봉은 해발 1,180m로 다른 이름으로 비로봉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왕봉의 정상에 오르면 뜀바위가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김덕령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고 담력을 기르던 훈련장이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전설을 전해들은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이 ‘나도 뛸

	수 있다'고 뛰다가 떨어져 죽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왕봉의 아찔한 주상절리대에서 뜀뛰기 연습을 했던 김덕령장군의 기상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김덕령 장군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이곳에서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촬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인왕봉과 지왕봉에서만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와계신 이곳이 바로 무등산의 최고봉인 해발 1187m의 천왕봉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천왕봉에 올라서면 무등산의 최고봉답게 전라북도 순창뿐 아니라 광주, 담양, 영암, 나주 등 호남 일원이 한눈에 들어오며 맑은 날에는 지리산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당일 날씨 설명) 좋아서 지리산이 보일 것만 같습니다.
눈으로 찍고 마음에 그리기	무등산 정상에 올라 인증샷도 찍어야하고 여러 지인분들게 알리고 싶으신데 카메라를 사용 할 수 없어 마음한켠에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눈을 따라 잡을 수 없지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한 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 둘러보셨나요? 그럼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방금 눈으로 찍었던 사진을 마음속에 그려 남겨보겠습니다. 초점이 흐리거나 사진이 완성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 번 눈을 뜨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려주세요. 약 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무등산의 정상에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간단한 느낌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본 무등산의 정상에서 만족하셨던 점이나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나은 탐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느낌나누기 시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무등산국립공원에서의 즐거운 추억은 한가득 담아가시고 하산하는 발걸음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 때면 한 번씩 오늘 찍은 사진을 마음속

	에서 꺼내보세요. 큰 힘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혹시 담아간 추억이 떨어지면 꼭 다시 충전하러 오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는 국립공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많이 웃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의 박수를 치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